

# 의사 태부족 전남,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대신 의료업무

간호사·조산사 자격 공무원이 의료행위...서울 0명·전남 328명  
신규 배출 의사 75% 수도권·대도시, 전남은 1.1%...쏠림 여전

## 김원이 민주당 의원 국감서 지적

지난 2016년 이후 활동 의사가 7915명 늘어났지만 이 가운데 74.8%는 수도권·부산·대구로 몰렸고 비수도권 지역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1880명이 의사 대신 의료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서울은 0명인 반면, 전남은 328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지역간 의료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시) 국회의원은 6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

출발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2019년 기준 전국에서 1880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근무 현황을 보면 서울은 0명이었지만 전남 328명(17.4%), 경북 299명(15.9%), 전북 238명(12.7%), 충남 236명(12.6%), 경남 213명(11.3%) 등에서는 많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사 업무를 맡고 있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지난 1980년 농어촌의료법을 통해 새로 생긴 직렬이다. 의사가 없는 의료 취약지역에서 '간호사

및 조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료한 뒤 경미한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전남 등 농어촌 지역은 의사가 부족해 간호사, 조산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1880명의 공무원이 의료행위를 대신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취약지역을 위해 1980년에 도입된 제도가 40년이 지난 이후에도 많은 농어촌 지역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최근 4년간 배출된 의사는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몰리는 현상이 여전했다. 김원이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대비 2019년 활동 의사 수는 7915명이 증가했으나, 이 중 74.8%인 5,920명의 의사는 수도권,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328명으로 가장 많은 전남의 의사 수는 86명 증가해 전체 증가 의사수의 1.1%에 불과했다. 의사 수가 늘어나더라도 배출된 의사의 대부분이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여전히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김원이 의원은 "사는 곳이 섬이라서, 지방이라서 치료 받을 권리에 차별이 있으면 안된다"면서 "모든 국민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왼쪽부터 로저 펜로즈, 라인하르트 겐젤, 안드레아 게즈.

## 노벨 물리학상 펜로즈·겐젤·게즈

3명 공동수상...블랙홀 발견·연구 기여

올해 노벨 물리학상에 로저 펜로즈, 라인하르트 겐젤, 안드레아 게즈 등 3명이 공동 수상자로 결정됐다. 이들은 블랙홀 발견과 연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3명은 올해의 노벨 물리학상 공동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900만크로나(약 10억9000만원)가 주어진다.

스웨덴 왕립 과학원 노벨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영국의 물리학자 로저 펜로즈, 독일의 물리학자 라인하르트 겐젤, 미국의 천문학자 안드레아 게즈

한편 그동안 노벨상 시상식은 매년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렸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탓에 온라인으로 대체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전남 농민들, 가격 급락 걱정없이 농수산물 공급한다

서울 가락시장에 2023년까지 전남형 공영시장 도매인 도입 전남도-서울시 업무협약 체결



김영록 전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시장 영상회의실에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오른쪽 네번째)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지자체 공영 시장도매인 도입을 위한 서울특별시-전라남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남도가 서울시와 2023년까지 가락시장에 '전남형 공영시장 도매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남의 농민들이 가격 급락 걱정없이 농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며, 서울의 소비자들도 보다 싼 가격에 전남의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6일 서울시와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혁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장에서 가진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김경호 서울시농수산물공공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 등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2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23년까지 지자체가 참여한 '전남형 공영시장 도매인' 도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은 기본 유통비를 제외한 수익금 전액을 농산물 가격이 공표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일정 부분 보전해 주며, 농민들과의 사전

계약재배 및 출하양정을 통해 출하량을 조절함으로써 농산물 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서울시는 경매 위주의 가락시장 거래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장도매인제 도입 건의 등 도매시장의 농수산물 거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대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 제도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2단계 사업이 완료될 오는 2023년 도입될 경우 막대한 이익 창출과 함께 농가 환원이 미미한 도매시장방식에 대한 경제 기능은 물론 농수산물 반입량에 따라 가격 등락 폭이 큰 경매제를 보완할 수 있어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유통구조가 혁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산지유통센터(APC) 건립, 산지통합마케팅 지원같은 산지 정책만으로는 농산물 가격안정과 수급조정에 한계가 있다"며 "산지와 더불어 소비자, 특히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같이 가격결정에 영향을 주는 도매시장에서의 가격안정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광주·전남혁신도시 온라인 채용설명회'

11월 30일까지 공식사이트 운영...채용정보·콘텐츠 등 제공

광주시와 전남도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0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온라인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온라인 설명회에는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을 비롯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12개 기업 및 전국 지방이전 102개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광주·전남지역 취업 준비생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한다. 참가 기업은 온라인 채용설명회 공식사

이트(www.innocity-jobfair.com)를 통해 이전공공기관별 채용제도 및 오픈컴퍼스 소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전문가 특강, 기관별 채용담당자가 채용요강 설명회 영상, 채용담당자와의 질문·답변방을 운영한다. 또 공공기관에 입사한 선배들의 브이로그(VLOG), 자기소개서 컨설팅,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생생한 채용정보 및 정보 교류 콘텐츠가 제공된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에 따라 2018년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비율 18%를 시작으로 매년 3% 이상 확대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운다.

지난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24.6%로, 총 396명을 지역인재로 채용했다. 이는 목표비율인 21%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추석연휴 닥터헬기가 살린 소중한 생명

전남 섬주민 응급환자 5명 이송...올해만 170명 구조

전남도가 섬 등 의료 취약지역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운영중인 닥터헬기가 응급환자 생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지난 추석 연휴기간 닥터헬기로 완도, 신안 등 섬 지역 응급환자 5명을 이송해 생명을 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추석을 맞아 섬 주민 응급환자 5명 이송...올해만 170명 구조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연휴기간 이송환자 중 총각을 다루는 급성심근경색 환자가 있었으나 당직의원과 119구급대, 권역외상센터 간 원활한 협조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 닥터헬기는 의료진이 탑승해 출동한 헬기이며, 응급환자 치료와 이송 전용으로 사용돼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불린다.

올해는 올해의 노벨 물리학상 공동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900만크로나(약 10억9000만원)가 주어진다.

응급환자가 탑승하더라도 의사가 응급처치를 할 수 있어 일반 헬기보다 생명보호에 훨씬 효과적이다. 실제로 연휴 첫날 완도군 금일읍에 사는 이모씨(76)가 노인회관에서 담소를 나누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관내 의원에서 실시한 심전도 검사 결과 급성 심근경색이 의심돼 헬기 이송이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119구급대가 닥터헬기

출동을 요청했으며, 권역외상센터인 목포 한국병원도 도착 즉시 심혈관 치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송된 이씨는 곧바로 심혈관조영술을 받고 무사히 치료를 마쳐 현재 건강을 회복 중이다. 출동부터 환자 이송까지 체한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닥터헬기와 관계 기관의 협조가 위기로부터 생명을 살린 것이다. 김영록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조 덕분에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응급의료 체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11년부터 닥터헬기를 이용해 매일 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 도서지역 등의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있으며, 올해 약 170명을 구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회 회수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 어르신 돌봄은행이 함께합니다!

"이제는 자원봉사도 저축이 된다"

어르신 돌봄은행이란?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돌봄활동을 제공하면 이를 돌봄포인트로 적립·관리하고, 만 65세 이후에 본인·가족·제3자가 돌봄활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돌봄봉사자 모집  
● 돌봄봉사자 자격 : 만13세이상, 2인 1조 활동 권고, 4시간 교육 필수(교육시간도 포인트 혜택)  
● 돌봄봉사자 혜택  
- 돌봄활동 1시간당 1포인트 적용(적립 및 사용)  
- 돌봄활동 시간 VMS 연계 적립  
- 돌봄포인트 적립 시 의무기부 20%  
- 적립한 포인트는 가족과 제3자에게 기부 가능  
● 돌봄활동 범위  
- 인지활동·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안전관리 등  
● 돌봄봉사자 기초관리교육 : 수시 모집

돌봄대상자는?  
● 어르신 돌봄은행에 회원등록한 만65세이상의 어르신 중 전문기가 돌봄활동 제공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이거나, 만 40세 이후 본인이 적립한 돌봄포인트와 기부받은 포인트의 합계가 100포인트 이상인 어르신  
● 돌봄서비스 범위 : 인지활동·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 안전관리 등

CCC 동구노인종합복지관 www.noin.or.kr  
☎ 062-232-4953

1688-3579 (전국 50개 시군구소재)  
보건복지부 SSN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땅 매매

## 화순 도곡 신덕리 계획관리지역 임야 20530㎡ 야산·축사허가 및 지붕 위 태양광 설치 가능 선로확보가 14억원(조정가)

▶ 남구 대촌 지석동 자연녹지 답1003.5㎡  
(대촌산업단지4차선 도로점, 아파트 2천세대 예정) 29억원

▶ 남구 대촌 양과동 답1857㎡ 2억8천5백만원

▶ 남구 대촌 양촌동 답3875㎡ 3억5천5백만원

▶ 관산 수완동 상업용 4층 건물 대지 480㎡, 연 998㎡, 엘리베이터 아파트 밀집지역 2억9천만원, 월 1640만원, 용 12억원 대 40억원

▶ 나주 남평 교촌리 생산녹지 2585㎡ 3억5천5백만원

대한공인중개사사무소(전제) 010-6683-3274  
광주광역시 남구 대촌 포충로 606-2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김해재(570812-XXXXXX)  
● 최후주소: 여수시 소호5길 39, 305동 102호 (소호동, 주은금융아파트)  
● 등록기준지: 전남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 1674번지  
피상속인 망 김해재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20년단399호로 신청하여 2020년 9월 25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10월 7일  
● 상속인: 차재성(810208-XXXXXX)  
여수시 소호5길 39, 305동 102호 (소호동, 주은금융아파트)  
● 신고기간: 2020. 10. 7. ~ 2020. 12. 16.  
● 채권신고처: 상속인 차재성의 주소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유성진(760204-XXXXXX)  
● 최후주소: 전남 영암군 사동면 마한로 1912-35 (소호동, 주은금융아파트)  
● 등록기준지: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진길 36-4  
피상속인 망 유성진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20년단363호로 신청하여 2020년 9월 23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10월 7일  
● 상속인: 유환수(160326-XXXXXX)  
법정대리인(권자모) 주어진  
전남 영암군 사동면 마한로 1912-35  
● 신고기간: 2020. 10. 7. ~ 2020. 12. 16.  
● 채권신고처: 상속인 유환수의 주소

###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의거 이해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기간 내에 신고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조사 및 개장  
- 소재지: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산173-3번지  
- 분묘기수: 1기
2. 개장사유: 사유재산권 보존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세법령에 의거 관할 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100일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여수시 영암읍  
- 안치기간: 안치 후 10년
6. 신고 및 연락처  
- 연락처: 010-2344-0088 김봉철  
여수시 선원4길 67 우미아파트빌 202동 606호
7.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위와 사항과 관계 없이 변경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식별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0년 10월 7일  
공고인 김봉철

### 산행안내

10월17일(토)  
▲광주금강산악회 10월17일(토)  
충북 포암산·만수봉·용암산, 봉선동 롯데마트앞 06:10, 진월 동식자재마트앞 06:20, 연주체육관 06:30, 한국병원앞 06:40, 문예회관정문 06:50, 비엔날레 주차장구입 07:00 \* 다음과 제주광주금강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광주일보 kwangju.co.kr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227-9600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220-0551